



총무원장 자승스님이 지난 22일 정몽준 한나라당 대표의 예방을 받고 환담을 나눴다.

정몽준 한나라당 대표 총무원 예방

강원지사 출마 선언한 이계진 의원도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이 지난 22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정몽준 한나라당 대표의 예방을 받고 동계올림픽 등을 화제로 환담을 나누었다. 이날 정몽준 한나라당 대표의 총무원장 스님 예방에는 총무원 기획실장 원담스님, 사서실장 경우스님, 주호영 특임장관, 박기련 정책특보, 정양석 한나라당 대표비서실장이 배석했다.

총무원장 스님은 같은 날 오는 6월2일 지방선거에서 강원도 지사

출마를 선언한 이계진〈사진〉한나라당 의원의 예방을 받고 대화를 나누었다. 이계진 의원은 “오늘 춘천에서 강원지사 출마 기자회견을 갖고 상경했다”면서 인사를 했다.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선전을 기원한다”면서 “최선을 다하라”고 격려했다.



이날 예방에는 부인 홍화식 여사가 동행했고, 총무원 기획실장 원담스님과 사서실장 경우스님이 배석했다. 강원도 원주에서 태어난 이계진 의원은 고려대 국문과를 졸업한 후 KBS 아나운서를 거쳐 제17대·18대 국회의원을 지냈으며, 제19대 국회의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한나라당 대변인과 한나라당 강원도당 위원장을 지냈다. 또한 맑고 향기롭게 이사직을 맡고 있고, 국회정각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지난 2008년에는 제16회 불교 언론문화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이성수 기자 soolee@ibulgyo.com

■ ‘승려 사유재산 출연 령’ 정착을 위한 과제

“출가정신 회복 의지에 성패 달려”

- ① 입법취지 공감대 확산 위한 노력
- ② 입적후 재산 활용방침 이해 확산
- ③ 사후 재산활용 범위 일부분 조정

‘승려 재산의 종단 출연에 관한 령’의 모법 ‘승려법’

제30조의 2(사유재산의 종단 귀속)

- ① 승려는 종단의 공익과 중생 구제의 목적 이외에는 본인이나 세속의 가족을 위하여 개인 명의의 재산을 취득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승려가 생전에 취득한 개인 명의의 재산은 당 승려가 환속, 제적, 사망하였을 경우 종단에 귀속된다.
 - ③ 제2항의 귀속을 위하여 승려는 구족계 수계 시와 이후 매5년마다 당 승려가 환속, 제적, 사망하였을 경우 개인명의 재산의 종단 출연에 관한 유언장을 제출하고, 종단에 약정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④ 종단은 본 조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을 승려 노후 복지와 승려 교육 기금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재단을 설립한다.
 - ⑤ 재산 출연과 그 기금의 집행에 관한 세부사항은 종령으로 정한다.
- [불기2551(2007)년 9월20일 조 신설]

업 등 은사가 생존시에 관심을 갖고 추진하던 일을 계승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수도권 사찰의 한 주지스님은 “스님들의 사유재산을 입적 후 종단에 출연해야 한다는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 “이번 령의 제정 취지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되지 않을 경우 자칫 사유재산이 음성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견해에 동의하는 스님들이 적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생존시에 재산을 종단에 귀속시키는 것은 받아들여, 속가나 신도 등의

인연 있는 사람에게 재산 관리를 맡길 수 있다는 우려이다. 그럴 경우 삼보정체인 스님들의 사유재산이 종단 밖으로 흘러나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것이다.

부산에 있는 사찰의 또 다른 주지스님은 “특히 비구니 스님들이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지적하고, “사유재산의 종단 출연에 대한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보다 구체적인 방안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다른 스님은 “적지 않은 스님들이 제적이나 별면 등 정계

를 달할 때 재산이 귀속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주지스님은 “이 같은 우려는 그동안 적지 않은 시간 동안 종단 안에 형성돼 있는 ‘불신(不信)’이 작용하는 것 같다”면서 “스님들이 형성한 사유재산이 외부로 흘러나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총무원이 지난 23일 기자회견에서 밝힌 향후 방침에는 스님들의 이 같은 우려를 해결해 줄 방안이 다수 들어있다. 귀속 범위를 종단에 한정 짓지 않고, 문중이나 교구본사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도 여론을 청취한 결과이다.

총무부장 영담스님은 “스님들이 ‘불의 사고’로 입적할 경우를 대비해 만든 령”이라면서 “일부에서 스님들이 살아 계실 동안에 재산을 환수하는 것으로 잘못 받아들이고 있다”고 밝혔다. 영담스님은 “제적이나 별면 등 종단 징계를 ‘정치적으로 악용’하여 사유재산을 종단에서 차지하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다”면서 “그럴 일도 없을 것이고, 사회법으로 볼 때 가장 최근의 유언장이나 서류를 우선하는 현실에서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출가자의 무소유와 공동체 정신을 확인하기 위한 취지로 제정된 ‘승려 재산의 종단 출연에 관한 령’의 실행과 정착 여부는 총무원의 강력한 추진력과 스님들의 출가정신 회복 의지에 따라 성패가 갈릴 것으로 전망된다.

이성수 기자 soolee@ibulgyo.com

본말사 주지 인사

〈불교신문〉은 “종지와 종책의 선양을 위한 종단 언론사책과 홍보업무 및 포교의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는 ‘기관지령’에 근거해 조계종 총무원 총무회의 결의와 총무원장 스님 결재를 득한 전국 본말사 주지 인사 내용을 소개합니다(교구본사 순). 지면 사정이 있을 경우 부득이하게 다음호에 이어 소개할 예정입니다. 임명일 (2월18일 총무회의 결과)



정명스님
가평 연화세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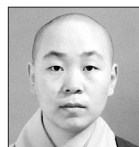
명훈스님
김포 금정사



지관스님
김포 용화사



성춘스님
서울 대각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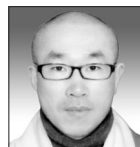
지문스님
마산 봉서사



성천스님
서울 연화정토사



설정스님
대구 청계사 포교원



일음스님
인제 백련정사



여해스님
거창 금봉암



보은스님
부산 금련암



지형스님
양산 내원사



보덕스님
함양 횡대선원



동우스님
인동 유허사



덕경스님
고흥 송광암



학순스님
화순 달마사



정랑스님
해남 서동사



수본스님
목포 봉운선원

현장에서

새 책은 늘 책상에 쌓여가고 출판면에 나갈 공간은 한정돼 있다. 전문서적 이외엔 내용과 저자를 살펴보다 지면 배치 구상부터 서둘러야 한다.

일단 만들어진 책은 공장 신간안 내로 나가야 한다는 원칙이 우선이다. 빨리 소개되는 것이 출판시장에 효과가 좋다. 출판사도 그걸 원하고 독자도 원한다.

이럴 경우 소개 기회를 놓친 신간이 문제다. 어렵게 쓰고 공들여 만든 책을 정성껏 신문에 보내줬는데 신간소개에도 비쳐지지 않으면 서로의 마음이 편치 못하다.

더구나 불교에 직접 연결되지 않아

속보와 상보의 경합시장



김종찬 기자
kimjc00@ibulgyo.com

도 출판사들은 신간 담당자에게 꾸준히 책을 보내준다. 이 책도 불교인들 예겐 소중한 자료다. 그만큼 신문에 입장에선 보탬이 될 책무이다.

신문사로서 불교가 우선이라 그런 불교이외의 책엔 기회가 별로 없다. 그걸 해결할 책무가 기자에게 주어졌다. 딱히 광고하고 연결되지도 않은

이 책에 대한 ‘부채’가 출판담당에게 화두로 주어졌다. 이것도 속보의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그렇다면 남은 과제는 순간의 기회를 포착하는 길 뿐이다. 그것마저도 불운에 부딪힌다. 책이 나온 시점에 대한 출판인의 판단이 비슷해 같은 시기에 출간일이 결정된다. 그래서 경쟁시장에 불리하게 참여하게 된다.

어차피 신문지면을 두고 펼쳐지는 3차 승부에선 기자도 하나의 승부를 위한 시장참여자인 뿐이다. 상황에 물리는 것에 진정한 승부처가 있다. 단기승부가 아니라 장기전에 대비하면 그렇다.

‘신도 멤버십’ 〈1면에 이어〉

이번 협약을 계기로 포교원은 신도등록을 한 불자들에게 신행과 생활에서 보다 많은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멤버십 가맹 제휴 사업을 본격적으로 확대, 시행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또 신도등록 및 신도증 발급 사업 개선을 위해 신도관리프로그램을 새롭게 개발해 2010년 상반기 중으로 사찰에 보급할 예정이다. 사찰별로 포교원에서 보급한 새로운 신도관리프로그램이 정착될 경우, 신도의 입교, 교육, 자격, 경력 등의 전산관리 체계가 구축돼 신도 관리가 보다 효율적인 이뤄질 전망이다.

불교문화행사 보조금지원 사업 공모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은 불교문화행사 육성 및 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불교문화단체와 대한불교조계종 등록사찰을 대상으로 ‘불교문화행사 보조금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모하오니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주체

- 가. 주최 :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
- 나. 주관 : 불교문화행사 보조금지원사업 심의위원회

●자격요건

- 가. 대상 : 대한불교조계종 등록사찰 및 단체
- 나. 내용
- 1) 2010년 3월 ~ 12월의 불교문화행사로 자부담 50%이상의 사업
- 2) 젊은층(어린이, 중고등,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불교문화행사
- 3) 저출산, 고령화, 복지, 서민, 소외계층 관련 불교문화행사
- 4) 전통적인 불교문화행사
- 5) 차별화된 불교문화행사(사찰·단체 또는 지역특성 등을 고려한 문화행사)
- 6) 지역문화 활성화를 돕거나 연계하는 불교문화행사
- 7) 외국인 참여를 유도하는 행사 우선함

●신청안내

- 가. 신청기간 : 불기2554(2010)년 2월 25일(목)~3월 11일(목) 오후5시까지
- 나. 신청방법 : 우편(소정양식 - 홈페이지 다운로드)
- 다. 접 수 처 :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45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 문화부
- 라. 문 의 처 : 문화부02)2011-1772 (담당 김낙현)
- 팩스 02)722-2606

●발 표

표 : 심의 후 개별통보

●신청서류 : 종단홈페이지www.buddhism.or.kr 다운받아 사용

- 가. 공문을 통해 우편으로만 접수(2010년 3월 11일 소인까지 접수인정)
- 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